고장 난 물건 앞에서 갈라지는 이야기 — 나의 탐구 노트

똑똑 · 에디터 이음 · 발행 2026.09.28

버리기·수리하기·다르게 쓰기의 선택을 이야기로 보여 준다면?

이름·작성일:

나의 탐구 질문:

제출 형식·분량:

선생님의 평가 기준:

AI·도구 사용 허용 조건:

중학교 시작

찢어진 종이 파일처럼 위험하지 않은 가상 물건으로 두 갈래 결말을 쓰고 선택 이유를 붙입니다.

고등학교 심화

수리 재료·시간·사용 목적이라는 제약을 넣어 각 선택의 이점과 남는 문제를 드러내는 분기형 이야기를 만듭니다.

준비 순서

1. 전기·배터리·날붙이가 없는 가상 생활 물건을 정합니다. 고장 부분, 필요한 기능,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조건 카드로 먼저 고정합니다.

2. 수리·다른 용도·교체 중 두 경로의 장면을 각각 세 개 씁니다. 수리하면 무조건 환경에 좋다는 결론 대신 남은 재료와 실제 사용 가능성을 서사에 넣습니다.

3. 독자가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를 읽고 조건 카드와 모순되는 부분을 고칩니다. 실제 수리 실적이나 감축량은 만들어 쓰지 않습니다.

1. 이야기 조건표

가상 물건	고장·필요 기능	사용 가능한 재료	시간 제약	안전 조건

2. 분기 대본표

선택	바로 생긴 결과	남은 문제	다음 장면	조건과의 일치

수신인·화자·상황

확인한 사실과 자료

창작한 표현과 선택 이유

전달하려는 뜻·고쳐 쓴 부분

자료 기록

제목	작성자·기관	발행일	주소·쪽수	확인한 근거	확인 날짜

도움 받은 부분과 나의 수정

도움의 출처 / 활용 범위 / 검증한 내용 / 수정 전후 / 나의 판단

제출 전 점검

☐ 이야기 속 수리법을 안전 검증이 끝난 실제 설명서처럼 제공하지 않았나요?

☐ 결말의 차이가 미리 정한 조건에서 생기나요?

참고 자료를 찾을 곳

미국 EPA · 학교 폐기물 줄이기 — https://www.epa.gov/schools/reducing-waste-schools

학교의 감량·재사용·수리 활동을 설계하는 배경 자료. 한국 지자체의 분리배출 규정이나 특정 물건의 탄소감축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똑똑 · 큐레아 / 자체 제작 활동지 / 학교의 공식 평가 양식이 아닙니다.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projects/repair-choice-story